U대회 수영장 계약금지 가처분신청… 입찰 문제있나

2위 성지건설 "남양측 건축면적 초과설계" 주장

市 "문제없다, 일정대로 추진" 검토후 최종 발표

광주시가 발주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수영장(공사비 623억원) 건설 입찰과 관련해 설계적격심사에서 2위를 한 업체가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성지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U대회 수영장 건설 입찰과 관련해 설계적격심사에서 2위를 차지한 성지건설 컨소시엄(이하 성지)은 지난 8일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에 각각 '기본설계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성지는 "남양건설 컨소시엄(이하 남양)이 수영장 옥외계단 및 경사로를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어겼다"며 "남양이 옥외계단과 경사로를 건축면적에 포함할 경우 광주시가 제시한 건축면적(1만2000㎡)을 위반하게 돼 초과설계에 따른 건축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성지의 주장처럼 남양의 건축면적(1만1992㎡)에 옥외계단과 경사로를 포함한다면 건축면적은 1만3492㎡로 늘어나게 된다.

성지는 "남양이 건축면적에서 제외한 옥외계단이나 보행통로는 2층 관람객을 위한 진출입 수직통로이며, 이를 없앨 경우 진출입구 없는 수영장이 된다"면서 "지난 2009년 6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과도 전혀 맞지 않는 설계다"고 밝혔다.

성지는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광주시에 수차례 보냈고, 설계적격심사 현장에서도 항의했으나 묵살당했다"며 "특히 이번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1위인 남양을 제외한 2개 업체가 외부계단과 경사로를 건축면적에 포함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번 설계심사 행정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지는 또 "설계적격심사에서도 8개 평가항목 중 조경만 놓고보더라도 나무 몇 그루만 있는 타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20억원짜리 특별설계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심사위원 중 외부에서 온 분은 우리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지만, 광주시 관계자인 다른 한 분은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배점을 했다"라며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성지의 주장처럼 옥외계단과 경사로를 건축면적에 포함하더라도 입찰 설명회 때 '약 1만2000㎡'를 기준으로 제시한 최대 건축면적 1만4355㎡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성지가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입찰기준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적격업체 탈락 등에 따른 공사일정 변경 등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남양은 지난 6일 설계적격심사에서 100점을 받아 91.25점과 76.97점을 각각 받은 성지와 우신건설 컨소시엄을 누르고 1위 업체로 선정됐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안 일로~ 몽탄 확포장공사 중단

감사원, 건설업체 최저낙찰제 입찰내역 조작 적발

무안 일로~몽탄간(8㎞)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입찰 과정에 비리가 드러나 최근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 입찰내역서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 이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비가 739억원인 이 공사는 지난 2010년 발주, 대진종합건설과 동양건설산업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았지만 입찰내역서 조작이 들통나 지난달 중순께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공정률은 13%이며, 전남도는 입찰에 참여했던 후순위 업체와의 재계약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달청 등을 통해 다른 업체와의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애초 목표였던 2016년 완공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로호 3차발사 못 할 뻔 했다

靑, 실패부담감 만류… 이주호, 대통령 독대 발사 허락

지난달 30일 성공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LSV-Ⅰ)의 3차 발사가 시도도 못한 채 무산 일보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나로호 3차 발사가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나 연기되자 이후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발사시도를 만류하고 나섰다.

세번째 시도에서도 3차 발사가 실패하면 받을 타격을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직후여서 부담이 더욱 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청와대 기류에 부딪히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발사 준비 상황을 보고하면서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리하지 않는 게 좋지만 준비가 됐다면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올해 1월 발사가 무산됐더라면, 결국 나로호 3차 발사는 영원히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그는 "성공이건 실패건 MB 정부 임기말 발사가 이뤄져 결과를 본 것이 다행"이라며 "만약 임기내 해결을 못했다면 다음 정권이 출범 초기에 큰 부담을 안고 발사 시도할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무기 연기되면 사용연한 등의 문제로 결국 나로호 발사계획은 폐기되고 곧바로 한국형발사체 사업으로 넘어갔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두 번째 3차 발사 시도가 과전류 문제로 중단된 뒤 두 달이나 지나서야 재발사가 이뤄진 것은 러시아 측의 체류비 문제 때문으로 밝혀졌다.

다른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작년 12월 발사에 전혀 무리가 없었으나 러시아측이 더 이상 돈(체류비)이 없다며 기술진이 철수한 뒤 1월 중순에 입국하는 바람에 발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나로호개발 64명 훈포장

나로호 개발과 성공 발사에 참여한 64명이 근정훈장, 과학기술훈장, 근정포장, 과학기술포장 등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로호발사추진단장으로서 발사를 진두지휘한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장은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게 된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차관 등 104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은 포상 시기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강시장, 도심 미관 훼손 변압기 이전대책 주문 강운태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민주평화광장 조성현장인 금남로 일대를 둘러보던 중 인도 곳곳에 설치돼 도심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한전 지상변압기(31개)의 이전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무등산 자연사박물관 건립 청신호

市-환경부 사실상 잠정합의… 원효사·증심사 앞 물색

광주시가 추진중인 국립공원 무등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광주시가 국립공원 무등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건립을 추진하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환경부에 건의했던 '국립 무등산자연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환경부 실무선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사실상 잠정 합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와 광주시는 자연사박물관 입지를 놓고 다소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증심사 입구를, 광주시는 원효사 앞을 각각 선호하고 있다.

총 2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자연사박물관은 무등산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무등산 사상' 연구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설악산·계룡산 탐방지원센터 내에 자연사박물관 기능을 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부의 무등산 5개년 계획 중 탐방로 정비(155.3㎞), 통신탑 이전, 군부대 이전, 원효사집단시설 이주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외국인 관광객 올 50만명 유치

전남도 25종 상품개발

전남도가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한다.

전남도는 12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모두 25종의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풍과 바다, 섬, 골프를 좋아하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이나 역사문화 관광을 선호하는 일본인 등을 위한 상품이 마련됐다.

또 중국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톈진과 하얼빈에서 전세기를 취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크루즈 관광객도 32차례 6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동남아와 미국 등 북미지역은 개별 여행객 공략과 함께 고국 방문단 상품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20만2000명, 2011년 23만5000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여수박람회에 힘입어 44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오광록기자 kroh@

동서남해안·내륙권 개발구역 지정면적 대폭 축소

동서남해안·내륙권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종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안권·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의 최소지정 면적을 종전 30만㎡에서 3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2008년 관련 근거법이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특별법상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지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지구 등 2곳뿐이다. /연합뉴스

운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 사 柳無山居士

國家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6기)	광주교육대학교(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3.8.(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3.9.(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 2013.3.4.(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3.7.(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3.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목)~3.9.(토)	2013.1.24.(목)~3.9.(토)
수업기간	2013.3.8.(금)~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월)~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중-2696호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가공인한자·한문 지도자사자격등급 (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 2013년 2월 4일(월) ~ 2013년 3월 7일(목)
★연수기간 : 2013년 3월 7일(목) ~ 2013년 8월 17일(금) (6개월/24주/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2:40 / 오후반 14:00~17:30

과정명	개강일시	수업과목	수업시간	모집인원
아동지도사	3.7(목)오전	•한자의 기본원리 •한자 100자 수업	64시간	30명
기초(2,3급)	3.9(토)오전	•부수해설·사자소학 •명심보감·추구	1단계 96시간	30명
심화(1급)	3.8(금)오전	•소학·대학 •중용·격몽요결	1단계 96시간	30명
특급(훈장)	3.6(수)오전	•논어·맹자 •고문진보	1단계 96시간	30명

★유능한 강사진·저렴한 수강비 등 고객만족 수강하세요
수료·자격취득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수 강 료 : 350,000원/농협 175375-56-065137(이종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 (사)한자교육 진흥회 광주·전남본부
문의상담 : ☎062)366-9666, 011-607-6292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 건강관리협회부근)
E메일 : hanja-exam@hanmail.net